



# 인도성지순례기 잇따라 나와

## 현장의 목소리로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 되새겨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도성지순례기가 연이어 발간되고 있다. 세계 5대 문명발상지이며 부처님의 탄생지이고, 활동무대였던 인도. 그런만큼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일 것이다.

최근 월주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이 <인도성지순례기 상하>, 이상규 변호사가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 이화중 법보신문 대표가 <인도에 가면 누구나 붓다가 된다>를 펴냈다.

월주 스님이 펴낸 <인도성지순례기>(이화문화출판사, 각권 2만5000원)는 1985년 2월 인도를 순례한 후 2005년 1월 인도의 불교8대 성지와 그 외 불교유적지, 간디선생 기념유적지를 두루 순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특히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부처님의 행적에 따라 기록하였다.

이 책에는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 성지 카필라국, 출가수행지 마가다국, 전범지 바라나시,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중심으로 영축산 일대 죽림정사와 온천장 범비사라왕궁터, 가바의사의 봉사지, 나란다 불교대학과 현장기념관이 소개된다. 이어 제1결집지, 제2결집지, 스라바스티, 기원정사, 앙골라마라의 집, 수닷타 장자의 집, 비구니 사찰등 유적지, 열도라, 아잔타, 산치대담등 20대 성지를 안내한다.

또 간디의 발자취와 인도의 여인 암베드 카드, 크리슈나 성지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상규 변호사가 쓴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불광출판부, 1만2000원)는 부처님의 초기경전인 아함경을 곁들여 일반여행서와 차별을 두고 있다.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동산, 왕자로 생활한

카필라성, 출가하여 6년동안 고행한 고행림, 정각을 이룬 보리수까지, 이어 녹야원에서의 초전법륜을 시작으로 45년간 증생교화와 제도에 힘쓴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게 한다.

이밖에도 인도불교의 현황과 아잔타 석굴, 담불화 석실사원, 보루부드르 사원 등 세계적인 불교유적의 소개도 곁들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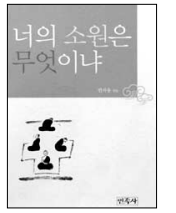
이화중 법보신문 대표의 <인도에 가면 누구나 붓다가 된다>오래된 미래, 9800원)도 네팔과 인도의 불교성지를 순례하며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 현재적 의미를 조명한 성지순례기.

이 책에서는 부처님이 한평생 밝아간 실제 여정과 중첩되어 에세이(순례기)와 소설(일대기)의 특성이 교차되면서 펼쳐진다. 저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불교 발생초기의 진정한 역사의 가르침, 부처님의 참모습,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새로운 책

■ 너의 소원은 무엇이나(한자용, 민족사)= 백척이나 되는 낭떠러지 끝에서 어떻게 하면 한걸음 한걸음 걸을 수 있을까. 수국사 주지를 지낸 자용 스님이 펴낸 <너의 소원은 무엇이나>는 백척간두의 허공속에서 한걸음 나아가려고 있는 사람들의 불교이야기 70여편을 모은 불교설화집 성격의 책이다. 이 책은 불교를 전래한 이차돈의 순교에서부터 80년대 후반 속초시 김해월심보살의 영험 이야기, 성철 스님과 관련된 일화를 가려 뽑았다. 책의 내용은 불보살의 신비로운 영험으로 재난을 모면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금쪽같은 불교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 무상속의 영원성(이정숙, 학수림)= 한국불교여법사단 단장인 이정숙씨가 펴낸 <무상속의 영원성>은 선교를 탐구하고, 법단에서 행한 설법자료를 모은 것이다. 이 책은 이정숙 법사가 우리나라 법화사상의 대가인 이법화 스님과 불연을 맺고 가르침에 따라 운명정진하여 30여 성상을 교화의 일선에서 헌신한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내용은 '묘법연화세계의 문은 넓다' '묘법연화경 삼계의 근본원리' '묘장엄왕의 가르침' '법화경 불사로 아버지를 천도하다' 등에 관한 얘기들이 들어있다.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이외유 총재는 "해박하고 주옥같은 내용은 정법교의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하며 교화 현장의 법사와 신행에 정진하는 전국의 불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 선종사찰 봉은사지(사찰문화연구원)=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의 역사와 문화, 인물, 문화재 등을 다룬 책. 일반인들에게 봉은사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컬러사진 자료를 배치하고, 문장도 평이하게 서술했다.

특히 '봉은사를 노래한 옛시문'을 새로 추가해 주변 경치와 사찰의 장엄을 노래한 문인과 시인들의 한시를 소개하고 그에대한 번역과 해석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봉은사를 연구하려는 연구자와 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역사 및 문화재 서술에 있어서 다양한 원문자료를 인용했다.

1997년 출판된 <봉은사지>의 개정증보판으로 그동안 변화된 가람의 건물을 수록하고 주요인물에서는 한글번역사업을 한 석주 스님과 대학생 수도원 활동을 한 광덕 스님을 새롭게 추가했다.



## 방황하는 10대들이 부처님 지혜 들려줄게

친구, 가족, 음식, 학교등을 대하는 방식과 자신만의 불성을 일깨워 행복하고 평온해지는 방법까지 10대들의 고민을 조언해주는 안내서가 나왔다.

프랜즈 댓캐프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종교학과 교수가 지은 <배낭속의 부처>.

1부에서는 부처님의 삶과 기본적인 가르침을 돌아본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살펴 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10대들에게 있어 삶의 전형적인 장면들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불교적 지혜를 적용하여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마지막 3부는 '불교의 길 가가'이다. 부처님은 삶을 길로 보았다. 그 길을 가는 방법과 기본적인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배낭속의 부처  
프랜즈 댓캐프 지음  
술바람 | 9800원



## 송광사 강원 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담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스님들 | 법공양 | 9000원

먹물웃에 고무신 신고 장작 패 아궁이에 군불 지피며 경전 공부하랴 예불하랴 울력 하랴 뼈곡하게 짜여진 일상. 송광사 강원 스님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지대방 이야기>의 개정판이 나왔다.

<지대방 이야기>는 송광사로 출가한 스님들이 대학처럼 4년제인 강원에서 생활하는 일상이 꾸밈없고 담백하게 담겨진 수필집이다. 절집 마당만 돌다 주눅주눅 들어가 지 못했던, 말쑥감치 바라만 봐야했던 스님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스님들은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대중 생활에서 맡은 소임을 하며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생활 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간다. 그러나 발우를 펴면 공간이 되고 경상을 들어 놓으면 강의실이 되고 이부자리를 펴면 그대로 잡자는 곳이 되는 대중방에서 생활이 모두 이루어진다 보니 갖 출가한 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담은 날마다 쌓여 가기 마련이다.

또 그만큼 문득해지는 도반들의 정도 이 책에 흐르는 따뜻함을 더해준다.

## 불교와 생태학 관계를 밝힌다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 동국대출판부 | 2만5000원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는 동국대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이 스티라카 페라테니아 대학과 함께 '불교의 생태학적 측면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공동학술세미나 발표논문들을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이론과 실천의 두 영역을 친생태적인 학문의 주요테마로 설정하여 불교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답과 실천을 불교의 상생과 화해의 정신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상호존재·순환적 과정 속에서 인식하고 생태적 관점에서 모색한다.



내 마음의 죽비소리  
이우빈 엮음  
경덕 | 9500원

## 내겐 스승 아닌게 없네

"나에게 스승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대를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목소리입니다. 방편에 구애받지 않고 늘 깨어있는 마음이 곧 수행의 방법입니다. 단지 집념이 찾아드는 순간 지금 하는 일의 본질을 잊은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인 이우빈씨가 엮은 불교가툰집 <내 마음의 죽비소리>는 생활속에서도 수행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이 책은 평범한 생활 속의 참선을 몸으로 실천하며 느낀 여러 가지 단상들을 배종훈 씨의 짙막한 만화와 함께 그림에 어울리는 경구를 실어, 보고 읽고 생각하게 해준다.

생활의 모든 대상이 곧 화두이며, 부딪치는 모든 상황들이 또 하나의 방편이다.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깨달아 가는 과정이 곧 마음공부라는 것이다.

본지 20면에 '행복동 사람들'을 연재중인 배종훈씨의 그림은 경쾌한 맛과 그윽한 교훈을 함께 던져준다. 간결한 구도와 차분한 색채로 묵직한 가르침을 소화해 내는 배씨의 그림은 이 책의 별미다.

# 쉽고 재미있는 경전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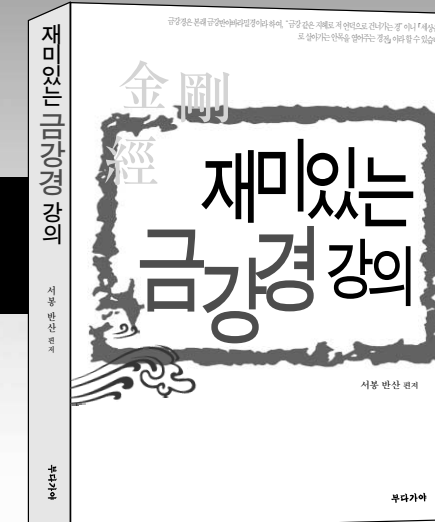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20분간 ~  
전국 BBS 불교방송 질찬리 방송중!!

월운스님의 전강講을 받아 맑은 혜안을 가지신 반산스님의 말씀으로 어느새 우리들 마음속의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릴 것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경전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인연공덕을 놓치지 마세요.

##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계가불자들이 서로 읽으며 공부할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를 펴낸다 하여 한 번 읽어보니 그 내용이 자못 충실합니다. 일반 불자들이 금강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는 조금도 손색이 없음을 물론,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경전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

- 월운스님 추천사 중에서 -



서풍 반산스님 편저 / 신국판 / 310쪽 / 값 12,000원



· 도서출판 부다거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대한기획 (051)866-7818